

# GIST, 희망이룸오케스트라 초청 'Hope Concert' 개최

- 권익인권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문화체험형 교육 진행
- 연주와 강의, 퀴즈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큰 호응 속에 성황리 진행



▲ 7월 1일(화), GIST 행정동 CT아트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 희망이룸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희망이룸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감동적인 음악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월 1일(화) GIST 행정동 CT아트홀에서 열렸으며, 임기철 총장과 정용화 대외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희망이룸오케스트라는 이날 공연에서 차이콥스키의 명곡을 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Hooked on Tchaikovsky'를 비롯해 'Flying', 'James Bond Theme' 등을 연주하며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소프라노 주선언과의 협연으로 'Think of Me', 'O Sole Mio', '아름다운 나라' 등 울림 있는 무대를 완성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전했다.

관객들은 연주자들이 하나 되어 호흡을 맞추는 모습과 장애를 극복한 열정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GIST 관계자는 “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희망이룸오케스트라는 2012년 경상남도에서 창단되어 발달장애인과 함께 음악 활동을 지속해오며, 지역을 넘어 전국 및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9년에는 러시아 야쿠티아 국립음악원에서 열린 국제워크숍에 초청되어 공연하고,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이룸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GIST 권익인권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